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탈북여성 사회적 약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옳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지속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북한이탈주민을 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왔던 대한민국에서 태생부터 다른 그들이 정착하기란 녹녹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통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700여명으로 이중 여성은 24,000여명으로 전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자 하

는 열망이 북한 여성들 위주로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국내의 경제상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작에 실패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힘든 생활고에 결국 마약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흥가를 전전하며 돈을 버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실상 국내 교육 및 취업 경험 없이 입국 후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서빙이나 공장 인부 등 단순 노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급여 또한 생활에 풍족한 수준은 아니어서 돈벌이를

위해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여건이기도 한다. 물론 남한 정착 이후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재 경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변보호 경찰관을 두고 범죄예방 및 후시라도 모를 테러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도 탈북민 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

쇄로 탈북루트가 막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러시는 계속될 것이고 남성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각계에서도 입국 여성북한이탈주민이 각종 범죄위협과 취업 문제 등 불안정한 정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 북한이탈주민 또한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생각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비교적 돈벌이가 쉬운 유흥가를 전전하기보다는 경찰과 주변 지역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기고

산불 예방은 쓰레기 소각 금지부터

누군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 사용 후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면 가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문명을 이룩해냈다고 칭송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든가 또는 제품의 효용가치가 다하게 되어 남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오늘날의 당연한 과제이다.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국경폐쇄와 지역 간에 이동을 제한하여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1회 용품 과소비의 악순환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방식이 재래식 농업에서 서구현대화로 소농에서 대농으로 또한 농촌인구의 탈도시화로 인해 열악한 일손 부족을 가져왔고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산업사회에서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로 급속히 변해 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기계설비의 농업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논·밭두렁 태우기, 농부산물소각, 쓰레기소각이 쉽고 편하며 삶의 지면에 고착해 있는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사회 상념으로 치부되어 폐기물 처리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하고 간편한 농업의 방식인 농업 부산물의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수시로 반복

되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농업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과거 부농들 또한 식량증대의 수단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의 소각을 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이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효용을 다하는 폐기물의 효용가치를 단순한 골칫덩어리로만 치부하고 폐기방법을 여전히 재래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농경사회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단순 소각이 아닌 농부산물과 들판의 무성하게 자란 풀을 태우거나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지 않고 손수 풀을 베다가 뒷간에 차곡 차곡 저장하여 숙성시킨 후 논·밭에 밑거름으로 사용하곤 했다. 농업경작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방식이 변화된 만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습관적 소각행위, 부주의한 불의 사용은 산불로 확대되어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을 낳고 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활동, 소방당국에서도 산림 인접지역 예방 순찰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산불로 확대되는 주요한 원인인 논·밭두렁, 쓰레기, 농업 부산물 소각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임흥태/영암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내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작은 습관

늦은 심야 시간, 누군가가 당신의 차량에 손을 댈때면 기분이 좋을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범죄가 일어나 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런 의식을 기 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주변은 CCTV가 없는 곳 을 찾기가 더 어려워 정도로 많은 방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차량 내 절 도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없어진 것은 아니다.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그들 나름 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

고 있음에도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 신만의 기준을 세워 취약한 장소를 물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 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심코 까먹 을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에서부터 예방해 나아갈 수 있다. 첫째, 차량의 문을 잠그고 난 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으며, 차량 또한 마찬가지 이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시스템, 집 내부에서도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내 차량의 위 치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 인하여 편의성이 증대되고, 이전보다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말 그 대로 보조 수단일 뿐이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문이 잠겼는지 확인 하는 것 만큼 보다 안전한 것은 없 다. 둘째,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않 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차량 내 현금, 귀중품 등을 간혹 차량 내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차량 내는 생각보다 안전한 장소 라 할 수 없고, 범죄에 취약한 장소 이므로 '별일이야, 있겠어'라는 생 각을 가지며 가볍게 생각 하여서는 안된다. 범행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늘 밤도 인적 이 드문 시간에 차량의 문이 열려 있 는지 손잡이를 당겨보는 것이다. 차량 내 절도 범죄는 결코 일어나 서는 안 될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 이 일어나고 있기에 내 차량을 지키 는 작은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하여 주변에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였 으면 한다. 김정배/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경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우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